

## [찬양과 큐티 4]

#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유지연 집사 / 1999 / 페이지 수: 1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여러 스타일의 음악을 접하게 된다. 클래식, 팝, 가스펠, CCM, 워십 송 등... 화려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다. 이 노래는 미국의 데이빗 그래함 형제가 작곡한 곡이다. 곡의 간결함(Simplicity), 그리고 간단하지만 지루하지 않은, 이러한 형태의 곡을 코러스(Chorus) 스타일곡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하는 아주 짧은 몇 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의 범위는 참으로 넓다.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때”는 있는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앞이 캄캄할 때”

“미래가 불확실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무엇이 응답인지 알 수 없을 때”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사망의 모든 대적이 공격해 오는 “이와 같은 때에” 여호사밧처럼 “우리를 쳐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하며 큰 소리로 찬송할 것인가? 아니면 바다에 큰물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된 “이와 같은 때에” 무서워하며 죽겠나이다 하던 제자들처럼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것인가?

밤세바와 동침 후 선지자 나단과 얘기하던 “이와 같은 때에” 즉시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한 다윗처럼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할 것인가?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요 하는 백성들의 노래를 들은 “이와 같은 때”는 얼마나 많은가? “이와 같은 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작곡자 데이빗은 이 노래를 통해서 이와 같은 때엔 “사랑은 노래하고, 손 높이 드네 주님께”하며 권면하고 있다. 주의 인자(사랑)가 생명보다 낮기에 이와 같은 때에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해도 이와 같은 때의 마지막 해결책은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께 손을 높이 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유지연 집사 / 핏서뮤직 대표>

\* 출처 : QT신문